

## August Konkell 박사, 잠언, 세션 21

© 2024 August Konkell 및 Ted Hildebrandt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l입니다. 잠언 31장 10-31절, 지혜찬양 21회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흔히 현숙한 여인에 관한 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의도적으로 쓰고 배치한 것이며, 적어도 잠언의 결론으로서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이 2022년 3월 4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열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나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다. 저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이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넥타이가 하르키프 시에서 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 하르키프 시는 무자비한 폭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종종 내가 이 넥타이를 구입한 시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시 그곳은 중국산 상품이 끝없이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넥타이는 나의 우크라이나 뿌리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시편 지혜찬미의 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이 시가 우리가 삼행시라고 부르는 시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에게 친숙한 용어일 것입니다. 다양한 시편에서 아크로스틱(acrostic)이 사용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인 시편 119편은 이중체입니다. 가로체의 역할은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로 연속되는 각 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글자는 Aleph, Bet, Gimel, Dalet, He 등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줄은 Aleph로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은 Bet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줄은 Gimel 등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시편 119편에는 실제로 알파벳의 각 문자로 시작하는 8개의 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22개의 문자가 있으므로 196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진짜 아크로스틱, 완전한 아크로스틱이 있다면, 22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편이 일종의 두음체라는 점을 PowerPoint 슬라이드에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2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쌍성체이고, 시의 중간지점인 11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중간지점으로 시작하여 의도적으로 긴 조건문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로스틱의 선. 그런데 시편 잠언 2장은 매우 깊이 생각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아크로스틱에 올 때, 그것은 우리가 모국어로 아크로스틱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어의 연합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현숙한 여인에게 바치는 시로 잠언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는 지혜로운 여인 자신과의 명백한 관계 때문에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 시를 지혜의 의인화로 읽는 이들도 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잠언 1장의 시작 부분에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혜는 모든 인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는 지혜의 또 다른 명시적인 의인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하나님의 동반자이자 우리 공동의 집, 지구, 우주 전체를 질서있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녀는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소개의 시작과 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31장에서 여성의 지혜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제 저는 여성의 지혜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 31장을 마치 지혜 자체에 대한 비유인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잠언 전체에 걸쳐 사실이었던 대조에 대한 작은 슬라이드를 여기에 올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여기서 의인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리석음은 여자이고, 지혜도 여자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들 개인의 실제 삶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낯선 여자, 이방인 여자, 감각적인 여자는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당신이 만날 인물의 실제 개인으로서의 어리석음을 표현한다. 현숙한 여인은 충성되고 신실한 아내의 본이요, 남편은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자요, 잠언이 보여주는 바로 그 모형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제가 말한 의인화는 단순히 어리석음의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을 의인화하는 방식, 즉 이 개념에 개인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에 보면 미련한 여자가 떠들고 시끄럽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화통을 합니다. 물론, 어리석음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은 사람이 하는 일의 종류인데 이런 사람으로 의인화됩니다.

지혜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의인화는 지혜의 여인이고, 몸에 음식이 필요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그림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넓은 홀에서 연회를 즐겨보세요. 그래서 지혜의 여인의 의인화는 우리가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분배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한 이 큰 연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덕한 여자라는 용어는 여자나 남자에게 꽤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육체적으로 강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되는데, 매우 강한 도덕적 인격을 지닌 사람이거나, 힘이 있어서 쉽게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덕이 있는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보충 내용은 다양한 시편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시편에서 발견되는 이 보충 내용을 보면서 잠시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여자로 의인화된 잠언에서만 우리는 강한 여자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일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가 쓴 책 중 아내에게 헌정한 책에서 저는 히브리어 하일(Hayi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내를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말할 수 있는 말.

시편 1장은 특별히 남자나 여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마치 남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축복 받았지만 그것은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포함됩니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 하일의 사람은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또 다른 용어로 가장 쉽게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언 3장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앞서 우리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무엇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가? 글썄요, 그건 그들의 마음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특징이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력이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이 필요하며 평생 동안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항상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고 참된 미덕과 가치와 자질을 행사하는 방법을 항상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시편 1장의 또 다른 사실은 이 지시나 토라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 즉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밤낮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개된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되어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언이 의와 지혜에 관해 반복해서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정도에서 우리는 지혜를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 보았으며, 그 구절에 대한 틴데일의 표현을 사용하면 영혼을 사로잡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즉, 이 캐릭터의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유산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편 1장에 있는 일반적인 소개이지만, 시편 15장으로 더 나아가서 이런 종류의 성격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속한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편 15장 2절과 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진언입니다. 잠언의 진언. 그리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웃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고 금전적인 학대도 없습니다.

물론 나는 시편 15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그 시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결하고 강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나는 시편 111편과 112편의 평행을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2편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내용과 거의 정확히 평행하는 이중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대합체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양한다는 말은 복되다는 말인데 아세라 가 아니고 바락 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지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편 112편에 표시된 미덕을 잠언 31장, 10-31장의 미덕과 비교해 보면, 여기서의 유사점은 분명해집니다. 강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글썄요,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은 근본적인 것이며 정의와 의로움과 공평으로 묘사된 것들을 낳습니다. 잠언 1장, 잠언 서문, 그리고 다시 잠언 2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를 요약하는 세 단어는 지혜를 얻고 의와 공평과 공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나요? 잠언 31장 10-31절의 내용은 평범한 일상 활동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차지할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의 거의 모든 여성의 경우, 그것은 남편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가장 일상적인 일, 음식 준비, 가정 생활에서 그들의 삶과 복지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가 밭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야 하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활동이 필요한 옷을 입는 것. 그녀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인에게 판매할 제품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 제시된 일종의 예입니다. 이 힘센 여인은 궁궐에서 왕을 대신하여 왕의 배우자가 되는 임무를 맡은 왕후가 아닙니다. 그의 다양한 모습. 그것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이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매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인은 남편에게 충성스러운 여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의 남편은 리드할 줄 아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문 앞에 앉아 차이점을 조정하고, 정의를 위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등 모든 일을 돕습니다. 이상형을 구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때로는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상황이고 다른 종류의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일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서 “그의 남편은 성문에서 재판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그의 남편은 아버지이고 그는 책임이 있고 이웃과 화목할

줄 알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런 것.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근면한 여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모든 여인이 물레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사람은 했습니다. 그녀는 물레와 실을 가져가서 양털을 잡아당기고 양털 자체를 감아 실이 될 때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일을 합니다.

이제 비교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질서를 정하시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명하신 일이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새로운 사회 단위를 형성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에게서는 독신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독신 남동생은 가족이자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지역인 서스캐처원 주 요크턴에서 우연히 설교를 하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그의 친구와 그의 가족이 모두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신도석 한가운데, 마치 전체 회중 한가운데에, 벤치에 아이들이 가득한 모습을 본 것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몸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 아이는 그들의 아버지나 삼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농장이 항상 여름의 절반 동안 그곳에 있을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가족에 통합되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독신자들에게 많은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물을 작동하도록 만드신 방식에 따라 우리는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 되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즉, 개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31장의 이 시가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혜를 안다면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표하고 알 수 있는지를 예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하는 모든 일의 이상형입니다. 그녀는 근면하며 집안일을 매우 잘 관리합니다.

그러면 잠언의 끝 부분에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글썄요, 제가 이미 제안한 것처럼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지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연구해 온 잠언에 관해 언급된 모든 것을 매우 의도적으로 예시합니다. 그것은 권력과 통제의 추구, 부의 추구, 개인의 독립과의 뚜렷한 대조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제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것을 끝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가입니다. 우리는 필수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을 가졌습니다.

왜? 왜냐하면 누군가가 겨울에 그것을 재배하는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 그것을 운반하지 않았다면 먹을 음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독립적이고 상호의존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상호 의존성은 내면 세계의 가족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의 시작 부분과 9장의 서문에서 소개되는 지혜의 여인의 의인화에 대한 실제 사례를 확실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의 이 결론을 읽으면서 이 결론을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배운 모든 것의 한 사람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신 선생의 말을 들으나라. 정의와 의로움과 공평함과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라.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잠언 31장 10-31절, 지혜찬양 21회입니다.